

##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길혜지(吉惠芝)\*\*

백순근(白淳根)\*\*\*

양현경(梁讓勅)\*\*\*\*

신은주(愼恩周)\*\*\*\*\*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직장인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개인 과 직장 수준에서 어떤 특성들이 대학원 진학 의사를 결정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2차년도 자료(2015년 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4년제 대학을 졸업한 733명 중 임금 근로자인 476명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졸 직장인 중 15.5%가 대학원 진학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관심 분야를 공부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근무형태에 따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에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수준에서는 생계유지보다 자아실현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직업을 선택했거나, 경제적 성공을 위해 본인 노력보다 혈연, 학연 등 외적 요소를 중시하는 직장인이 대학원 진학 의사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 그리고 직장수준에서는 서울에 근무하는 직장인일수록, 업무와 전공일치도가 높을수록, 직장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만족도가 낮을수록 대학원 진학 의사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에 진출한 직장인들의 대학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 교육이 더 다양화·특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4년제 대졸 직장인, 대학원 진학 의사,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

\* 이 논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제1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2017.6.23.)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이 연구의 교신저자임(dr100@snu.ac.kr).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

## I. 서론

우리나라에서 2017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68.9%에 이르고(한국교육개발원, 2017a), 2013년 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률 역시 2.8%로서 OECD 가입국 평균보다 0.1%p 높게 나타나(OECD, 2015), 사회적으로 고등학력을 소지한 성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대학원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33,939명에서 2017년 326,315명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한국교육개발원, 2017b), 이는 2017년 기준 4년제 대학 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다(교육부, 2016).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은 학술연구를 통해 전문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영민, 2011), 이러한 대학원생 규모의 양적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창환과 정철영(2009)은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대학원은 그동안 대졸자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특권을 대체하여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반면 진미석(2006)은 대학원 과정을 소수의 엘리트들이 대학교수가 되기 위한 경로로만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최근의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인해 유예기간을 확보하거나 혹은 더 나은 취업 조건을 갖추기 위해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력상승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자 하는 사회적 현상이 대학원생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선혜연, 2011). 언론에서도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여 취업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보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도하기도 하였다(국민일보, 2017.1.30.).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직업세계가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거나 혹은 현업 수행을 보다 잘 하기 위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일·학습 병행제 등 제도적으로도 직업을 유지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에 진출한 후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게 된 성인들도 상당 수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전통적인 대학원의 운영 목표와는 다른 이유로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성인 비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학원 진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해, 4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성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는 그동안中等교육에서 고등교육 이행기에 실시되는 수능 및 대입전형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보인 반면에, 대학원은 소수의 인원이 특별한 목적에서 진학하는 과정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차성현, 엄문영, 민병철, 2014). 그러나 대학 진학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에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등교육 보편화의 연장에서 보아야 할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입학 자원이 나날이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대학원생의 증가는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학부 교육에서 대학원 교육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한편, 학부 과정을 졸업한 후 곧이어 대학원에 진학한 '전통적인 대학원생'과 사회에 진출한 후 어떠한 이유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온' 대학원생들은 학습 동기 및 역량, 학습 과정 등에서 전반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원 진학 결정 요인을 탐색해 온 다수의 국내 연구들은 전통적인 대학원생에 한정하여 분석해 왔다는 점에서(오창환, 정철영, 2009; 이영민, 임정연, 2011; 이영민, 임정연, 2017; 차성현, 엄문영, 민병철, 2014; 채창균, 2007), 대학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이해하는 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하여 임금근로자로서의 삶을 경험하다가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교육이 어떠한 기능을 새로이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논의를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졸 직장인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4년제 대졸 직장인들의 대학원 진학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직장 수준의 변수는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원 진학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원 진학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이론, 구체적으로 인적자본이론(capital investment model), 사회인지적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성취동기이론(achievement motivation theory)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차성현, 엄문영, 민병철(2014)은 인적자본이론을 통해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의 진학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교육투자를 통해서 축적된 생산력은 노동소득과 연결되므로, 대학원 진학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소득이 동일 기간에 취업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 소득보다 크다고 평가한 경우에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적자본이론은 취업 후 경제 활동을 하다가 학교로 돌아오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의 진학 이유를 설명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승진 혹은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바라고 교육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는 있으나, 이미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현재보다 높은 임금을 위해서만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보기 어

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적자본이론과 함께 Lent, Brown, & Hackett(1994)가 제안한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은 진로발달에 있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제약하거나 지원해주는 맥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때, 개인적 요인에는 인지적 특성, 개인 성향, 성별, 인종, 건강상태 등이 해당하고, 맥락적 요인에는 일종의 진로장벽으로 작용하는 문화적 특성, 관습, 경제적 조건 등이 포함된다(손은령, 2004: 626).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적인 문화권에서는 진로 선택에서 환경적 요인의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Tang, Fouad, & Smith, 1999, 손은령, 2004: 628에서 재인용). 예컨대, 직장이나 담당 업무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직장인이 대학원 진학을 더 희망할 수 있고, 미혼 직장인이 기혼 직장인에 비해 쉽게 대학원 진학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인맥의 중요성을 느낀 직장인이 인맥 형성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할 수도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McClelland(1961)가 주장한 성취동기이론을 살펴보면, 성취동기이론은 학습의 동기가 성취동기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를 성취욕구, 친화욕구, 권력욕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취욕구는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한 후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여 이를 해결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직무를 숙달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그리고 친화욕구는 다른 사람과 우호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이며, 권력욕구는 리더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하며 타인을 설득시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명성을 얻는데 관심을 가지는 욕구를 의미한다(박미숙, 이미정, 2015에서 재인용). 참고로 차성현, 엄문영, 민병철(2014)은 대학원 진학을 위치재(positional goods) 혹은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해석한 바 있다. 위치재는 상대방의 소비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재화를 의미하는데, 주로 좋은 직업, 교육서비스, 사치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Marginson, 2006). 즉,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학사에 그치지 않고 석·박사학위라는 높은 학력을 획득함으로써 사회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권력욕구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인간은 목표 지향적이고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존재이며, 특히 어떤 과업이나 업무에 직면했을 때 학습을 위해 동기화 된다(Wlodkowski, 1999). 이 때, 내재적으로 학습 자체가 좋아서 자기성취감이나 자기만족감에 따라 학습하기도 하고, 외재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학위, 자격, 졸업, 취업기회 등을 얻기 위해 학습하기도 한다(정현진, 이희수, 2009). 이러한 맥락에서도 대졸 직장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학습에 대한 자기성취감에서 내재적 동기로 인하거나, 외재적으로 학위, 승진, 취업(이직) 기회, 인맥 등을 위해서 진학을 선택하기도 할 것이다.

## 2.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직장수준 요인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성인들의 특성을 개인과 직장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학부 과정을 마치자마자 대학원에 진학한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직장에 한정짓지 않고 전반적으로 대학원 진학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첫째, 대학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수준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단계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제외한 가족배경 변수들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여(김기현, 2004), 가족의 영향으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 가능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의 교육 년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대학원 진학 가능성이 높았다(이영민, 2011; 이영민, 임정연, 2011; Mullen, Goyette, & Joseph, 2003). 그런데 이러한 가정배경 변수, 특히 부모 관련 변수들은 전문대학원 진학에는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나(이영민, 임정연, 2011), MBA 진학에는 어느 정도 직장 경력이 필요하므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Mullen, Goyette, & Joseph, 2003).

그리고 학생의 학부배경 및 전공 변수에 있어, 대학소재지 및 출신대학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 진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닐수록 대학원 진학 가능성이 높았다(이영민, 임정연, 2011). 아울러, 학부전공에 따라 대학원 진학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 전공생일수록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에 대한 만족도 역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이영민, 2011; 이영민, 임정연, 2011). 다만, 차성현, 엄문영, 민병철(2014)은 학부 성적이나 실업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은 국외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영민(2011)의 연구에서는 특수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에 비해 연령이 높고 직장에 재직 중인 시간제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4년제 대졸 직장인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학부 교육 이상의 지적활동을 요구할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시간 및 물질적인 자원의 투입을 전제로 하는 만큼 모든 4년제 대졸 직장인이 선택하는 필수 코스라고 보기는 어렵다(선헤연, 2011). 그리고 대학원마다 학술연구, 전문 직업분야의 실무교육, 직장인을 위한 계속교육과 같은 다양한 목적 및 이에 따른 교육과정(curriculum)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며, 사회 경험 후 대학원으로 돌아가는 학습자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 또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이영민, 임정연 201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에 대한 가치관 역시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또한 존재한다. 이준석(2015)은 학력·학벌주의 사회에서 고학력자들 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하며, 구조주의적 욕망, 가족 지향적 태도, 조건 중심의 결혼 문화가 이를 매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사회계층 상승이동 욕구 및 주체적 학습

육망 인식을 가진 성인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고 보았다. 정서린과 기영화(2011)에 의하면 대학원생 중 50세에서 59세 정도의 준 고령자들은 진로 전환과 이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얻은 경험들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 주려는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학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반면, Seligman(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여가와 만족감을 토대로 여유로운 학업 생활을 성취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며, 직장 생활보다 대학원 생활이 더 행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대학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직장수준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혜연(2011)은 '학부졸업 직후 대학원 진학자'에 비해 이미 직장 생활 중이었던 '4년제 대졸 직장인 진학자'들은 인맥형성을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의 진로성숙 단계가 전통적인 대학원생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대졸 직장인 진학자들의 학습동기 등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대학원 생활과 직장을 병행하는 사람도 있고 휴직하거나 퇴직하고 대학원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재직하던 직장의 특성이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 마련이다. 예컨대 대학원 생활과 직장생활의 병행이 가능한 유아교사들은 대학원을 통해 교사생활 및 가족·친구관계에 소홀해지기도 하나, 대학원에서 교사로서의 역량·자신감 향상으로 인한 활력을 얻고 앞으로의 교사생활에서 당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안유리, 이대균, 2012). 또한, 황지원과 주형선(2012)의 연구에서 원격대학원 학생들은 전공 지식습득을 위해 진학하였다는 점에서는 일반대학원과 진학 이유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원격대학원을 선택한 이유에 있어서 '직업과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졸업 이후에도 직업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직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문대학원 진학 요인을 연구한 한지영과 이내영(2016)에 따르면, 대학원 진학 의사가 있는 병원 간호사들에게 진학 이유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는 더 나은 경력 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진학한다고 하고 있었고, 이는 영국과 독일 간호사 대상 연구결과(Watkins, 2011)와도 동일하다고 한 바 있다. 간호사들이 석사학위가 간호사의 적정 자격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대학원 과정을 통해 실무에서의 전문성을 계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직장인들의 주된 대학원 진학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홍성연(2011)의 연구에서도 원격대학원에 진학한 교사들은 직업 전문성의 재교육을 주된 진학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요컨대, 직장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다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4년제 대졸자를 이해함에 있어 단편적인 인적자본 축적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인지적으로 개인 외적·맥락적 요인에 의해 진로를 탐색하고, 학업과 사회적 성공에 관한 다양한 욕구와 동기를 가지고 있는 복합체로서 성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부터 수집·관리 중인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코호트를 중심으로 12차년도(2015년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KEEP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 일반계고 3학년, 실업계고 3학년 각 2,000명 등 총 6,000명을 표집한 후 매년 추적 조사하여, 교육실태, 교육효과,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패널조사이다. KEEP의 고등학교 코호트의 경우, 12차년도까지 추적조사를 통한 유지 표본 수는 2,551명(63.8%)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개인과 직장수준에서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있으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지 최소 2년이 경과된 취업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 졸업 후 구직 기간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졸업 후 최소 2년이라는 기준을 정하였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직장수준에서의 특성이 임금근로자와 상이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12차년도 조사에 응한 청년들 중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여에 걸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733명 중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면서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변수에 성실히 응답한 47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중에서는 2012년에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이 167명(35.1%)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고, 2009년, 2010년, 2011년에 졸업한 직장인들도 각각 20%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2007년에 졸업한 직장인 5명은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응답하여 조기 졸업한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졸업시점에 따른 대학원 진학 의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졸업한지 만 5년 정도 된 2009년 대졸자들의 경우, 5명 중 1명의 비율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졸업시점에 따른 대학원 진학 의사 여부

졸업 년도	대학원 진학의사		전체
	예	아니오	
2007년	0(0.0)	5(100.0)	5(100.0)

2008년	0(0.0)	10(100.0)	10(100.0)
2009년	23(21.9)	82(78.1)	105(100.0)
2010년	16(16.7)	80(83.3)	96(100.0)
2011년	14(15.1)	79(84.9)	93(100.0)
2012년	21(12.6)	146(87.4)	167(100.0)
계	74(15.5)	402(84.5)	476(100.0)

참고로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직장인과, 졸업 직후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예정자 간 대학원 진학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종 분석대상과 동일한 시기에 거쳐 졸업할 예정이면서 대학원 진학 관련 변수에 성실히 응답한 1,145명을 추가 분석하였다. 다만, 대학원 진학 관련 조사는 5차년도(2008)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 사이 졸업 예정자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중, 대학원 진학 의사를 가진 학부 졸업 예정자의 비율은 25.7%(294명)이었는데, 졸업예정시점이 늦어질수록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대학원 진학의사를 가진 졸업예정자 수 및 해당년도에서의 비율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의 경우 71명, 30.6%이고,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의 경우에는 39명, 17.2%로 나타났다.

## 2. 분석 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4년제 대졸 직장인들의 '대학원 진학 의사'이다. 즉,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시점에서 2년이 경과하여 임금근로자로 재직하는 가운데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도록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KEEP에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 의사가 있는지 여부만을 간접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일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지, 혹은 교육대학원이나 법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지에 따라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교육(학위)과 직업(진로) 간의 연계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EEP에서 가용자료의 한계로 일반대학원인지 전문대학원인지 관련하여 대학원 구분이 불가능하였고 단지 진학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는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원 진학 의사를 유의하게 설명할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를 개인과 직장수준에서 설정하였다. 개인수준에서는 크게 개인배경과 직업인식으로 나누었고, 직장수준에서도 직장배경과 업무특성으로 나누었다. 이는 4년제 대졸 직장인들의 대학원 진학 의사를 살펴볼 때, 인적자본의 축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인지적 진로이론과 성취동

기이론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때, 해당 값들은 모두 12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배경과 관련하여 5개 변수(성별,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재정상태 만족도, 자아개념)를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더미 처리한 것이며, '결혼 유무'와 '자녀 유무'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혼, 자녀 없음'과 '기혼, 자녀 있음'을 1로 '미혼'을 0으로 각각 더미 처리하였다. '재정상태 만족도'는 현재의 재정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며 1개 문항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아개념'은 5점 척도(1점~5점, 이하 동일)를 활용하여 6개 문항(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삶의 가치, 결정력과 계획의 추진 능력, 자신에 대한 평가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들 문항의 평균값이다.

둘째, 직업인식과 관련하여 3개 변수(평생직장 인식 여부, 본인노력 중시, 자아실현·사회봉사 목적)를 설정하였는데, 이들 변수는 모두 더미 처리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직장 인식 여부'의 경우, 현재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그리고 사회에서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가운데, '본인노력 중시'는 부모, 연줄, 운 등의 외부적 요인보다 본인의 노력이 경제적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1로, '부모, 연줄, 운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0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현재 직장을 선택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아실현·사회봉사 중시'는 '자아실현, 사회봉사, 사회적 인정을 위해 직업을 선택한 경우'를 1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선택한 경우'를 0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이상의 직업인식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성취 욕구를 가졌는지, 혹은 외재적이거나 내재적 동기를 가졌는지에 따라 대학원 진학의사를 달리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직장배경 변수는 5개(직장소재지, 대기업 근무 여부, 정규직 여부, 3년 이상 근무 여부, 주당 총 근무시간)이며, 각각 서울소재, 대기업, 정규직, 3년 이상 근무의 여부에 따라 더미 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장 소재지'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닐 경우' 1로, '광역시, 시, 읍면지역에 소재'할 경우 0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대기업 근무 여부'는 근무 중인 직장의 전체 직장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를 대기업이라 간주하고, 근무지가 '대기업'에 해당할 경우 1로, 그 외의 경우를 0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다만, 실제 대기업 여부는 기업의 연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KEEP에서는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 않아 총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규모의 실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3년 이상 근무 여부'의 경우, '현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1로, '3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를 0으로 더미 처리하여 현 직장에서 근무의 연속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로그 주당 총 근무시간'은 직장에서의 노동 강도를 대리하기 위한 변수로서, 정규근무와 초과근무를 합

한 직장에서의 일주일 총 근무시간을 로그 변환한 값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업무특성과 관련하여 5개 변수(일과 전공 일치도, 능력대비 업무수준, 교육대비 업무수준, 업무만족도, 직장만족도)를 설정하였다. ‘일과 전공 일치도’는 직장에서 하는 일과 전공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능력대비 업무수준’과 ‘교육대비 업무수준’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 혹은 교육수준이 자신에 비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만약 자신의 능력이나 교육수준과 요구받는 업무수준 간 격차가 크다면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업무만족도’의 경우,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 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직장만족도’는 단일요인으로서 직장의 근무환경, 근무시간, 인간관계, 임금, 개인의 발전가능성, 복지후생, 안정성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7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값으로 할당하였다. 이상의 분석변수에 대한 요약 설명 및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변수에 대한 설명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명	변수 설명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b>&lt;종속 변수&gt;</b>					
대학원 진학의사	대학원 진학 의사가 있는 직장인=1 대학원 진학 의사가 없는 직장인=0	0	1	.16	.36
<b>&lt;개인수준 설명 변수&gt;</b>					
남자	남자=1, 여자=0	0	1	.50	.50
기혼, 자녀 없음	기혼, 자녀 없음=1, 미혼=0	0	1	.10	.30
개 인 배 경	기혼, 자녀 있음	0	1	.29	.28
재정상태 만족	현재의 재정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10점 척도로 응답한 값	1	10	5.65	1.80
자아개념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삶의 가치, 결 정력과 계획의 추진 능력, 자신에 대한 평가 등 6 개 문항의 평균값(5점 척도)	2	5	3.74	.54
직 업 인 식	평생직장인식 여부	0	1	.35	.48
본인노력 중시	경제적 성공을 위해 본인의 노력 중시=1, 부모, 연줄, 운 등 중시=0	0	1	.38	.49
자아실현 사회봉사 목적	자아실현, 사회봉사, 사회적 인정을 위해 직업 선택=1,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 선택=0	0	1	.16	.37
<b>&lt;직장수준 설명 변수&gt;</b>					

	서울소재	직장이 서울에 소재=1, 광역시, 시, 읍면지역 소재=0	0	1	.29	.46
직 장 배 경	대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대기업)=1, 그 외=0	0	1	.33	.47
	정규직	근무형태가 정규직=1, 비정규직=0	0	1	.87	.34
	3년 이상 근무	현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1 3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0	0	1	.58	.49
	로그 주당 총 근무시간	일주일 총 근무시간(정규근무, 초과근무 합산) 을 로그로 변환한 값	1.61	4.62	3.82	.27
	일과전공 일치도	직장에서 하는 일과 전공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값	1	5	3.36	1.07
	능력대비 업무수준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이 자신에 비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값	1	5	2.98	.59
업 무 특 성	교육대비 업무수준	직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이 자신에 비해 얼 마나 높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 답한 값	1	5	2.91	.61
	업무만족도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업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값	1	5	3.35	.68
	직장만족도	직장의 근무환경, 근무시간, 인간관계, 임금, 개 인의 발전가능성, 복지후생, 안정성에 대해 얼 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5점 척도로 측정된 7개 문항의 평균 값	1	5	3.35	.79

###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 중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의 대학원 진학 희망이유를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대학원생과 비교하고, 더 나아가 대학원 진학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과 직장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구문제인 4년제 대졸 직장인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 희망 이유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KEEP에서는 대학원 진학 희망 이유에 대해 총 11개 항목(①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②승진에 도움이 되므로, ③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④학벌 상승을 위해, ⑤학력 상승을 위해, ⑥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⑦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⑧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등)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희망 이유와 '전통

적인 대학원생'의 이유 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해당 시기에 졸업 예정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추가 분석하였다. 그리고 4년제 대졸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가 상이한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례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다중응답 처리한 '대학원 진학 이유' 중 10 이상의 응답을 보인 5개 항목(①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②승진에 도움이 되므로, ③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④학벌 상승을 위해, ⑤학력 상승을 위해)을 중심으로, 근무형태 관련 변수(직장 소재지, 대기업 근무여부, 정규직 여부, 3년 이상 근무여부 등)에 따른 응답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4년제 대졸 직장인들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서, 설명변수를 크게 개인수준과 직장수준으로 구분하였다(<표 2> 참조). 그리고 종속변수인 대학원 진학 의사가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는 이분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로지스틱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logit}(\text{대학원 진학의사 여부}) =$

$$\beta_0 + \sum_{i=1}^5 \beta_i (\text{개인배경})_i + \sum_{i=6}^8 \beta_i (\text{직업인식})_i + \sum_{i=9}^{13} \beta_i (\text{직장배경})_i + \sum_{l=14}^{18} \beta_l (\text{업무특성})_l + e_i$$

이상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이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 이유 1순위와 2순위를 다중응답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학원 진학 이유의 1순위로는 '관심 분야 공부(33.8%)', '직무능력 향상(32.4%)', '학력 상승(14.9%)'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직장인 3명 중 2명이 관심 분야를 공부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순위 응답 분포 역시 1순위 응답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다중응답 처리 후 분석한 결과, '관심 분야 공부(29.1%)', '직무 능력 향상(27.0%)', '학력 상승(16.2%)', '승진에 도움(9.5%)', '학벌 상승(7.4%)'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lt;표 3&gt; 대학원 진학 희망 이유(1순위, 2순위, 다중응답)

진학 희망 이유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관심 분야 공부	25	33.8	18	24.3	43	29.0
직무능력 향상	24	32.4	16	21.6	40	27.0
학력 상승	11	14.8	13	17.6	24	16.2
승진에 도움	4	5.4	10	13.5	14	9.5
학벌 상승(지명도 있는 대학진학)	4	5.4	7	9.4	11	7.4
인맥 형성	3	4.0	4	5.4	7	4.7
취업에 도움	1	1.4	4	5.4	5	3.4
취업이 어려워서	1	1.4	1	1.4	2	1.4
유학가기 위해	1	1.4	0	0.0	1	0.7
여가시간 활용	0	0.0	0	0.0	0	0.0
기타	0	0.0	1	1.4	1	0.7
계	74	100.0	74	100.0	148	100.0

한편 임금근로자와 학부 졸업 후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예정자 간 진학 이유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졸 직장인은 ‘관심 분야 공부(29.0%)’, ‘직무 능력 향상(27.0%)’, ‘학력 상승(16.2%)’ 순으로 높았으나, 졸업 예정자의 경우, ‘관심 분야 공부(38.8%)’, ‘학력 상승(22.8%)’, ‘직무능력 향상(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 직장인의 경우 ‘승진에 도움(9.5%)’의 비율이 높은 반면, 졸업 예정자는 ‘취업에 도움(14.0%)’이 높았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lt;표 4&gt; 대학원 진학 희망 이유 비교

진학 희망 이유	대졸 직장인		대학 졸업 예정자	
	사례 수	%	사례 수	%
관심 분야 공부	43	29.0	114	38.8
직무능력 향상	40	27.0	42	14.3
학력 상승	24	16.2	67	22.8
승진에 도움	14	9.5	5	1.7
학벌 상승(지명도 있는 대학진학)	11	7.4	16	5.4
인맥 형성	7	4.7	3	1.0
취업에 도움	5	3.4	41	14.0
취업이 어려워서	2	1.4	0	0.0
유학가기 위해	1	0.7	2	0.7
여가시간 활용	0	0.0	0	0.0
특별한 이유 없음	0	0.0	1	0.3
기타	1	0.7	3	1.0
계	148	100.0	294	100.0

주1: 10차년도(2013년) 이후 대학원 진학 희망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졸직장인은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순위와 2순위를 다중응답처리한 후 분석한 결과임.

참고로 근무형태에 따라 직장인들의 대학원 진학 희망 이유가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대학원 진학이유 1순위와 2순위를 다중응답처리 후 상위 5개 항목에 대해 근무형태 관련 변수를 활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분석 결과, 4년제 대졸 직장인의 근무 형태, 즉, 직장 소재지, 대기업 여부, 정규직 여부, 근무기간에 따른 대학원 진학 희망 이유에는 특별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직장특성이나 근무형태와는 무관하게,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개인의 내적인 동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5> 직장특성 및 근무형태에 따른 대학원 진학 희망 이유

	직장 소재지		대기업 여부		정규직		근무기간	
	서울	그 외	대기업	그 외	정규직	비정규직	3년이상	그 외
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23 (35.4)	20 (29.9)	20 (40.8)	23 (27.7)	37 (32.5)	6 (33.3)	24 (31.6)	19 (33.9)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16 (24.6)	24 (35.8)	15 (30.6)	25 (30.1)	34 (29.8)	6 (33.3)	24 (31.6)	16 (28.6)
학력 상승을 위해	14 (21.5)	10 (14.9)	8 (16.3)	16 (19.3)	20 (17.5)	4 (22.2)	17 (22.4)	7 (12.5)
승진에 도움이 되므로	4 (6.2)	10 (14.9)	4 (8.2)	10 (12.1)	13 (11.4)	1 (5.6)	7 (9.2)	7 (12.5)
학벌 상승을 위해	8 (12.3)	3 (4.5)	2 (4.1)	9 (10.8)	10 (8.8)	1 (5.6)	4 (5.2)	7 (12.5)
계	65 (100.0)	67 (100.0)	49 (100.0)	83 (100.0)	114 (100.0)	18 (100.0)	76 (100.0)	56 (100.0)

## 2.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직장수준의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개인수준 요인을 개인배경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인식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본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직장인'이 '부모의 도움,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연줄, 운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직장인'보다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질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B=-0.791$ , 승산비 0.807배). 반면, 직업을 선택할 때 '자아실현, 사회봉사, 사회적 인정'을 고려한 직장인은 단순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 직장인보다 대학원 진학 의사를 가질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B=0.685$ , 승산비 1.150배). 참고로, 성별, 결혼 및 자녀 유무, 현재 재정상태 만족도, 자아

개념과 같은 개인배경과 현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수준의 요인 역시, 크게 직장배경과 업무특성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 광역시, 시, 읍면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보다 대학원 진학 의사를 보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B=0.809$ , 승산비 1.228배). 그러나 그 외, 대기업에 근무하는지, 정규직인지, 3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는지와, 주당 총 근무시간으로 대리되는 노동 강도는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에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 특성과 관련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전공과 일치도가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 의사를 보일 확률이 높아졌다( $B=0.479$ , 승산비 1.327배).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근무시간, 인간관계, 임금, 개인의 발전가능성, 복지후생, 안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직장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의사를 보일 확률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0.743$ , 승산비 1.383배). 반면,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대학원 진학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B=-0.438$ , 승산비 0.848배). 이 외에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기술) 수준이나 교육 수준은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수준에서 직업선택 시 가족의 생계유지보다는 '자아실현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이고, 직장수준에서는 '서울소재 직장을 다니는지 여부', '업무와 전공일치도', '직장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실현과 사회봉사를 중시하며 현 직장을 선택하였고, 자신의 전공과 담당 업무가 일치하며, 전반적인 직장에서의 근무여건에 만족할 때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근무 여부 및 근무형태(정규직, 장기 근무, 노동 강도)는 그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직장의 소재지가 서울인지 여부는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수준에서는 '경제적 성공을 위해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외적인 요소들 보다 중시하는지 여부'이고, 직장수준에서는 '업무 만족도'였다. 즉, 경제적 성공을 위해 부모, 연줄, 운 등을 중시하는 직장인이 본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직장인보다 대학원 진학 의사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았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대학원 진학 의사가 낮았다.

<표 6>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요인 분석 결과

		B	S.E	$\beta$	Exp( $\beta$ )	
<b>&lt;개인특성&gt;</b>						
개 인 배 경	남자 (여자=0)	-0.206	0.293	-0.057	0.945	
	결혼여부 (미혼=0)	기혼, 자녀 없음	0.123	0.424	0.020	1.021
		기혼, 자녀 있음	-0.679	0.592	-0.105	0.900
	재정 상태 만족	-0.103	0.076	-0.102	0.903	
	자아개념	-0.099	0.280	-0.030	0.971	
직 업 인 식	평생직장 인식 (평생직장 미인식=0)	-0.010	0.316	-0.003	0.997	
	본인 노력 중시 (부모, 연줄, 운 중시=0)	-0.791*	0.313	-0.214	0.807	
	자아실현·사회봉사 목적 (생계유지 목적=0)	0.685*	0.336	0.140	1.150	
<b>&lt;직장특성&gt;</b>						
직 장 배 경	서울소재 직장 (광역시, 시, 읍면소재=0)	0.809***	0.287	0.206	1.228	
	대기업 (중소기업=0)	0.340	0.300	0.088	1.092	
	근무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0)	-0.134	0.444	-0.025	0.975
		3년이상 근무 (3년미만 근무=0)	-0.179	0.291	-0.049	0.953
		주당 총 근무시간	0.233	0.618	0.035	1.035
업 무 특 성	업무와 전공일치도	0.479**	0.154	0.283	1.327	
	능력대비 업무수준	0.090	0.339	0.029	1.030	
	교육대비 업무수준	0.169	0.334	0.057	1.059	
	업무만족도	-0.438*	0.220	-0.165	0.848	
	직장만족도	0.743**	0.286	0.324	1.383	
상수 값		-5.123	2.785			
		-2로그우도		355.944		
R2	Cox & Snell		0.110			
	Nagelkerke		0.190			
N		0476				

주: 변수 간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비표준화 회귀계수(B)를 표준화한 후( $\beta = B \times \frac{SD_X}{1.81}$ ), 표준화 회귀계수( $\beta$ )를 활용하여 얻은 승산비를 보고하였음(홍세희, 2005:38, Menard, 2004:219).

\*p < 0.05, \*\*p < 0.01, \*\*\*p < 0.001

##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여 임금근로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 대학원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들과는 진학 이유, 학습 동기 및 역량, 그리고 학습 과정 등에 있어 전반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지, 더 나아가 이러한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직장수준의 요인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교육이 어떠한 기능을 새로이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생 코호트를 중심으로 12차년도(2015년 조사) KEEP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733명 중 2015년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면서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변수에 성실히 응답한 476명이다. 이 중 15.5%(74명)가 대학원 진학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학 이유 1순위와 2순위를 다중응답 처리하여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직장수준의 변수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 진학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은 ‘관심 분야 공부(29.0%)’, ‘직무능력 향상(27.0%)’, ‘학력 상승(16.2%)’의 순으로 주된 진학 희망 이유를 보였다. 그런데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관심 분야 공부(38.8%)’와 ‘학력 상승(22.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무능력향상’은 14.3%에 불과하여 직장인들의 진학 이유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승진에 도움이 되므로(9.5%, 1.7%)’,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3.4%, 14.0%)’에 대한 응답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졸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목적에서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주된 대학원 진학 이유는 관심 분야를 공부하고 현업에서의 직무능력 향상에 있으나, 이준석(2015)의 연구와 유사하게 학력·학벌주의 사회에서 학벌 상승을 위해 소위 명문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요 역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직장인의 근무형태, 즉 직장 소재지, 대기업 근무여부, 정규직 여부 및 3년 이상 근무여부에 따른 대학원 진학 희망 이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 진학을 단편적으로 인적자원 축적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성취욕구나 학습동기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원 진학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는 학업 중심의 전통적인 대학원생들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새로운 요구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하여 개별 대학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학원 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향후 고등교육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컨대 대학원 교육에 부합하는 진로 교육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구 중심의 대학원 교육과는 트랙을 달리하여 직장인들의 새로운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이르면 따라, 대학원 교육이 소수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를 지니고 직장에서 자아실현 하고자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의 기능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직장수준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년제 대졸 직장인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수준에서 '직업선택 시 가족의 생계유지보다는 자아실현과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 이고, 직장수준에서는 '서울소재 직장을 다니는지 여부', '업무와 전공일치도', '직장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수준에서는 '경제적 성공을 위해 본인의 능력을 외적인 요소들 보다 중시하는지 여부'이고, 직장수준에서는 '업무 만족도'였다. 참고로 대학원 진학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승산비를 고려하여 제시하면, 직장만족도(1.383), 업무와 전공일치도(1.327), 서울소재 직장 여부(1.228),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1.1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 만족도가 높고,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자아실현이나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대학원에 진학 의사를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직장인들이 대기업에 근무하는지, 정규직인지, 3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는지, 주당 근무 강도는 어떠한지, 현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지 여부와 같은 직장배경 관련 요인 자체는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대학원 교육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으며, 직장 생활과 병행하여 대학원 교육을 받기에 지리적 위치 또한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황지원과 주형선(2012)의 연구에서 전공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직업과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대학원에 진학하였다고 밝힌 점과도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비교적 학부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직장인들이 대학원 교육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에서 자기 계발을 위한 대학원 교육을 허용하거나, 더 나아가 권장

하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만약 직장인들이 현업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직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본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도움, 학연, 지연 등의 연줄과 운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중시하는 직장인이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혜연(2011)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맥 형성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수요가 부분적으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이 어느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외적·맥락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외재적인 권력 욕구가 발현됨에 따른 선택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직장인들의 대학원 교육에 대한 수요는 연구 중심의 전통적인 대학원생들과는 확연히 다르고, 또한 자아실현 등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와도 상이하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이 다양한 수요를 가진 직장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원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상이한 수요를 가진 대학원생들 간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 및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4년제 대학 학부 교육과정을 마친 후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이 아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KEEP 자료를 통해 실제 대학원 진학 여부에 대한 응답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용자료의 한계 상 대학원 진학 의사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다. 또한, 분석모형에서 대학교 학부과정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부교육과 연계한 대학원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서 학부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바로 진학한 대학원생들과,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대학원생들 간의 진학 결정 요인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특히, 이들 간 대학 학부 교육 시기에 어떠한 경험상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6). 2017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 국민일보(2017). '좋은 직장' 잡으려 졸업 미루고...대학원 가고... 2017년 1월 30일자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6356&code=11151100&cp=nv>  
 에서 5월 27일 인출.
- 김기현(2004). 가족 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331-354.
- 박미숙, 이미정(2015). 대학원 과정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학업동기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747-770.
- 선혜연(2011).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성인학습자 간의 진학목적 및 진로성숙도 차이. **인간이해**, 32(2), 165-179.
- 손은령(2004). 진로선택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 **상담학연구**, 5(3), 623-635.
- 안유리, 이대균(2012).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는 유아교사들의 경험과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27-52.
- 오창환, 정철영(2009).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대학원 진학 선택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4), 199-218.
- 이영민(2011).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중단연구. **기업교육연구**, 13(2), 31-52.
- 이영민, 임정연(2011).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 분석.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4(3), 233-258.
- 이영민, 임정연(2017).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 분석. 2017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자료. 263-285.
- 이준석(2015). 근거이론적 접근에 따른 성인 입문·전기 학습자의 학습욕망 기저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63-85.
- 정서린, 기영화(2011). 대학원 준고령 학습자의 경험을 활용한 학습 과정 탐색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HRD연구**, 13(4), 137-170.
- 정현진, 이희수(2009). 대학원 여성의 학습참여 동기와 저해요인. **한국HRD연구**, 4(3), 55-78.
- 진미석(2006). 석사학위자들의 진로결과와 학위 효용가치 인식을 통해 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기능. **교육학연구**, 44(2), 135-159.
- 차성현, 엄문영, 민병철(2014). 대학원 진학 결정의 영향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2),

209-233.

채창균(2007). 청년패널 종합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한지영, 이내영(2016). 병원간호사의 대학원 진학 요구 및 실태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8), 109-122.

홍세희(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홍성연(2011). 교원들이 인식하는 우수 원격학습자 유형 분석 : 원격대학원 진학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8(4), 429-463.

황지원, 주형선(2012). 방송대 대학원 학생실태조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2017a). 2017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7b).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 취업통계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Marginson, S. (2006). Dynamics of national and global competition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52(1), 1-39.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 D.Van Nostrand Co.

Menard, S. (2004). Six approaches to calculating standardized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The American Statistician*, 58(3), 218-223.

Mullen, A. L., Goyette, K. A., & Joseph, A. (2003). Who goes to graduate school? soci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educational continuation after college. *Sociology of Education*, 76(2), 143-169.

OECD (2015). Education at glance: OECD indicators 2015.

Seligman, A. I. (2012). *Is graduate school really for you? : The whos, whats, hows, and whys of pursuing a master's or Ph.D.*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Tang, M., Fouad, N. A., & Smith, P. L. (1999). Asian Americans career choices: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142-157.

Watkins, D. (2011). Motivation and expectations of German and British nurses embarking on a masters programme. *Nurse Education Today*, 31(1), 31-35.

Wlodkowski, R. J. (1999). *Enhancing adult motivation to learn: a comprehensive guide for teaching all adults(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논문접수 2018년 5월 4일 / 1차 심사 2018년 6월 14일 / 게재승인 2018년 6월 21일

\* 김혜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측정 및 평가'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교육정책평가, 고등교육 성과평가, 다층자료 분석이다.

\* E-mail: eduhj@cbnu.ac.kr

\* 백순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UC Berkeley에서 교육측정 및 평가 분야 박사학위(Ph. D.)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수행평가, 교육프로그램평가, 교육정책평가 등이다.

\* E-mail: dr100@snu.ac.kr

\* 양현경: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측정 및 평가' 전공으로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ehh4817@snu.ac.kr

\* 신은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육측정 및 평가'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s.ellen6300@gmail.com

## Abstract

## Analyzing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for Entering Graduate School by General Workers with a Four-year Undergraduate Degree

Kil, Hye-Ji\*

Baek, Sun-Geun\*\*

Yang, Hyun-Gyung\*\*\*

Shin, Eu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asons as to why those who hold bachelor's degree are pursuing graduate study having joined a workforce and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individual or job-related characteristics on entering graduate school. Using the 12th year (2015)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data, 476 employed people's responses out of 773 people with four-year college degree had been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15.5% of employees with four-year bachelor's degree showed a desire to pursue graduate study; their primary motive was to improve job skills and competency. Second, the reason for desiring graduate study did not differ by their job descriptions. Finally,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in the individual level, the people who whose job choice driven not by making a living but by a desire for self-actualization, the service to our society, and those who value human network over personal endeavors for their financial success are more likely to desire graduate study. In addition, those who work in Seoul, those whose job description matches with their undergraduate major, those who are more content with their job, those who are discontent with workplaces are more likely to pursue graduate study. These results suggest that graduate school education needs to be diversified and specialized regarding new demands for entering graduate schools of workers who have already had a job.

Key words: general workers with a four-year undergraduate degree, entering graduate school, logistic regression, KEEP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